

“小兒肥滿에 關한 東西醫學的 考察”

高聖哲* · 丁奎萬**

I. 緒 論

最近 經濟的인 成長으로 因해 幼兒 또는 兒童에서 肥滿兒가 늘고 있으며⁴⁰⁾, 그 關心이 世界的인 傾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44, 45)}

肥滿이란 體內에 超過되는 脂肪의 蓄積을 말하며,^{23, 31)} 飲食으로 攝取한 熱量이 energy로 消費되는 量보다 많을 때 일어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는데,^{21, 24, 35, 37, 39, 42, 44)} 비록 正常과의 뚜렷한 區分線은 없지만, 같은 연령, 性, 키를 가진 兒童에서 標準體重보다 20% 이상 무거운 때를 말한다.^{34, 38, 44, 46)}

많이 먹어 살찌면 바로 健康인 줄 알지만 成人이 되면 心血管系疾患, 糖尿病, 膽石症, 呼吸不全證候, 皮膚疾患 等 臨床症狀을 지니며 合病症이 많으니^{21, 23, 24, 26, 27, 33, 41)} 過度하게 肥滿하면 平均死亡率이 增加할 뿐만 아니라 壽命이 줄어든다고 한다.^{1, 8, 26, 29, 32, 33, 44)} 또한, 小兒肥滿이 成人肥滿이 되는데 2/3나 된다는 사실로써 注意가 必要하고,^{40, 46)} 社會的으로 劣等感과 人格形成에도 큰 問題가 된다는 점이 重要하다.^{36, 40)}

內經 靈樞「衛氣失常篇」에서는 膏, 脂, 肉으로 衆人과 區別을 하였고,⁶⁾ 靈樞「逆順肥瘦論」에서는 年質壯大하고 血氣充盈하면서 膚華堅固한 사람을 肥滿人이라 하였으며,⁶⁾ 살이찌면 熱이 생기면서 發散하기 어려워 氣閉로 隔塞閉絕하며 上下不通이 되어 中風과 痿厥等의

病이 된다고 內經 素問「通評虛實論」에 까지 보여진다.^{3, 5)}

肥滿에 對한 研究로는 鄭⁴⁵⁾이 來院患者를 對象으로하여 그 發病時期가 5~10세 兒童에서 가장 높다고 報告하였을 뿐, 初期段階에 지나지 않는 肥滿에 對해 基礎的인 研究를 위한 文獻考察을 한 바 若干의 結果를 얻어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表 1〉 韓醫書에 나타난 原因

| 原因 册名 | 厚味過多 | 氣虛 | 多痰 | 多濕 |
|----------------------------------|------|----|----|----|
| 內經類 2, 3, 5, 6) | ○ | | | |
| 丹溪心法附餘 ¹⁰⁾ | | ○ | | ○ |
| 醫學入門 ¹²⁾ | | | ○ | ○ |
| 景岳全書 ¹¹⁾ | | ○ | | ○ |
| 醫部全錄 ¹⁵⁾ | | ○ | ○ | ○ |
| 萬病回春 ¹⁴⁾ | | ○ | ○ | ○ |
| 金·元 四大醫家 學術思想研究 ⁹⁾ | | ○ | | |
| 徐靈胎醫書全集 ⁷⁾ | | | | ○ |
| 東醫寶鑑 ¹⁾ | | ○ | ○ | |
| 醫學正傳 ¹⁷⁾ | | | | ○ |
| 晴崗醫鑑 ⁴⁾ | | ○ | | |
| 中醫歷代醫論選 ¹⁶⁾ | ○ | ○ | | |
| 中醫病理研究 ¹⁸⁾ | | | ○ | ○ |
| 韓方臨床學 ²³⁾ | | | | ○ |
| 中醫學問答 ¹³⁾ | | | ○ | ○ |
| 東洋醫學大辭典 ⁸⁾ | ○ | | | |

* 서울·東仁堂韓醫院長, 圓光大學校 大學院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表 2〉 西醫學에서의 原因

| 册名 \ 原因 | 과 식 | 에너지 발란스 상 | 운동부족 | 유 전 | 정서적 (정신·심리) | 환경적 (가족·사회) |
|---|-----|-----------------|------|-----|----------------|----------------|
| 症狀鑑別手冊* ¹⁹⁾ | | | | ○ | ○ | |
| 東醫精神科學* ²⁰⁾ | ○ | | | | ○ | |
| 東醫肝系內科學* ²¹⁾ | ○ | | | | | ○ |
| 韓方治療大全* ²²⁾ | ○ | | ○ | | | |
| 韓方臨床學* ²³⁾ | ○ | | ○ | | | |
| 漢方臨床四十年* ²⁴⁾ | ○ | | ○ | | | |
| 韓方大全* ²⁵⁾ | ○ | | ○ | | | |
| Harrison's 內科學 ²⁷⁾ | ○ | | | | | |
| Human Physiology ²⁹⁾ | ○ | | ○ | | ○ | ○ |
| Medical Physiology ³¹⁾ | ○ | | | | ○ | |
| Current medical ³²⁾ | | | | ○ | ○ | ○ |
| Pathology basis of disease ³³⁾ | ○ | ○ | | | | ○ |
| 臨床小兒科學 ³⁶⁾ | ○ | | ○ | ○ | ○ | ○ |
| 內科學 ³⁷⁾ | ○ | ○ | | | ○ | |
| 診斷學 ³⁵⁾ | | ○ | | | | |
| 小兒科診斷 ³⁸⁾ | ○ | ○ | ○ | ○ | ○ | |
| 現代公衆保健學 ⁴⁰⁾ | ○ | ○ | ○ | ○ | | |
| 成人看護學 ⁴²⁾ | ○ | | | ○ | ○ | |
| 食餌療法 ⁴⁴⁾ | ○ | ○ | ○ | ○ | ○ | |

II. 總括 및 考察

小兒肥滿은 어떤 基礎疾患없이 나타나는 “單純性肥滿”이 대부분을 차지하고,^{23,34,38)} 成人肥滿으로 2/3 이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34,38,46)} 간혹 內的인 障害로 인한 “症候性肥滿”이 있으나, 그 原因에 對한 病理的 機轉을 文獻上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여기에서는 “單純性肥滿”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Cecil²⁶⁾ 과 Harrison²⁷⁾ 의 內科學에서는

脂肪細胞 숫자의 增殖하는 時期가 肥滿하지 않는 사람에서도 누구나 出生한 후 첫 2年 時期와 思春期에서 두 번 있다고 했고; 이 때 肥滿하게 되면 生涯 계속 肥滿하기 쉽다고 했으며, 細胞 크기가 커지는 Hypertropic obesity (肥大型)는 成人時期에 많이 일어나며, Hyperplastic obesity (增生型)은 細胞數의 增加에 기인한다고 했으며, Guyton³¹⁾은 肥滿兒의 脂肪細胞數는 正常兒보다 3배나 된다고 했으니, 小兒때의 두차례 數의 增加時期는 肥

滿에 대해 特別히 注意해야 한다고 思料된다.

肥滿에 對한 韓醫書는 매우 드물게 있고, 小兒肥滿에 對한 言及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으니, 이는 그 당시 時代의 經濟的인 側面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이다.

古代時代에서 부터의 原因은 表1과 같으며, 病理的인 面을 살펴보자면 “肥者 令人內熱”, “膈塞閉絕 上下不通”^{2,3,6)} 한다고 했고, “肥人多氣虛之證 然濕多滯故 氣道多有不利”, “肥人者 柔勝於剛 陰勝於陽”이라 하여 氣虛함을 말했으며,¹¹⁾ “虛則氣不能運行故痰生”이라 했고,⁶⁾ “肥白之人 沈困惰怠 屬氣虛,”⁹⁾ “肥人血實氣虛”, “肥人氣虛多痰 宜豁痰補氣”, “腠理緻密而 多鬱滯氣血 難而通利故 多卒中”¹¹⁾이라 했다. 또한, 劉는¹³⁾ 過食肥甘之物이나 嗜酒로 濕熱과 痰濁이 內生하여 氣血壅滯하므로써 癰瘍類病이 된다 하였고, 吳¹⁶⁾는 高粱之體는 表虛裡實이라 하여 皮毛가 弱하여 쉽게 風寒에 의 病이 되고 腸胃에 油膩腥膻이 쌓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朴²²⁾은 肥滿한 者는 毒과 熱이 充滿하고 그 體質로서 瘀血, 水毒, 食毒의 症이 많은 바 겉으로 보기엔 튼튼한 것 같으나 실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運動不足과 食生活에 관련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點에서 보면 肥滿이란 氣虛한 상태로써, 肥甘한 物質을 過食함으로써 裡實한 상태를 이루니 濕을 生하고 다시 濕生痰으로 痰濁해지면서 多滯를 다시 이루고 毒性으로 化하여 病理的인 產物이 되면서 中風, 氣道下利의 呼吸不全, 化膿性 皮膚疾患을 이룬다고 보여지며, 다시 그 후유증으로 虛한 狀態에서 無氣力과 惰怠를 반복한다고 思料된다.

西醫學에서의 小兒肥滿의 原因을 종합해 보면 先天的인 것 外에 治療할 수 있는 영역은 後天的인 것으로서 緊張, 不安, 焦燥 等に 依

한 情緒的인 面이나, 칭찬의 도구, 慾求不滿에 依한 心理的인 것들의 環境에 기인한 경우가 있고, 個人的 먹는 習慣, 偏食 等の 모든 過食하게 되는 原因들을 是正해 주는 것이 重要하며, 또한 心理的인 劣等感이나 父母의 過剩保護에 따른 運動不足도 큰 原因이 되고, 이로 인해 攝取와 消費에 따른 energy 不均衡이 뒤따르게 되며, 더욱 深化되면 energy balance 이상이 되어 運動不足을 다시 낳고, 따라서 肥滿도가 더욱 增加하게 되는 惡循環이 反復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선 藥劑를 먹는 等の 강제적인 것 보다는 食餌와 運動에 따른 適切한 調節이 必要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以上的 두 醫學을 綜合해 보자면 遺傳에 依한 先天的인 原因을 빼 놓고, 血實氣虛한 狀態에서 無氣力, 惰怠함으로써 運動不足이 되고, 그저 過食만 한다면 이는 病理的으로 濕痰이 모이고 鬱滯되어 또다른 代謝異常을 유발하고 다시 毒性을 形成하면서 肥滿을 加重되어 體力은 弱하며 살만 찐 ‘形成氣衰’한 상태가 된다고 보았으니, 中風이나, 高血壓 等の 心血管系疾患, 糖尿病, 呼吸不全 膽石症이 된다고 하였고, 肥滿하게 됨으로써 化膿性疾患까지 된다고 한 點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肥滿하게 되면 臨床的으로 症狀이 처음엔 健康한 體力을 보이다가 더 심하고 오래 되면 他 여러가지 症狀을 보이며, 또 合病症도 危險할 뿐만 아니라 死亡率도 높아지고 壽命이 줄어든다는 點에서 小兒때부터 철저한 注意가 必要하며, 特히 脂肪細胞가 늘어나는 時期인 경우엔 治療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그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주로 四君子湯, 六君子湯,^{14,15)} 十全大補湯, 大補元煎^{4,14,15)}, 二陳湯加味^{14,15)}, 防風通聖散, 大柴胡湯, 防己黃芪湯^{20,23,24)}

등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小兒肥滿에 局限하여 使用될 特別한 것은 없지만 그 理致는 濕痰을 除去하면서 補氣하고, 또한 濕熱을 去하는 處方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適切한 運動을 하면서 質과 量의으로 食餌를 兼해야 한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III. 結 論

小兒肥滿에 對한 其礎的인 概念과, 原因, 그 에 따른 病理, 治療方法等에 關해 文獻을 찾아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小兒肥滿은 基礎疾患이 없는 單純性 肥滿이 많고, 內的인 障害에 依한 症候性인 경우는 5~10%로 적다.

2. 小兒肥滿은 細胞數增加에 따른 增生性 肥滿이다.

3. 單純性肥滿은 家族과 社會 等에 依한 環境的인 原因에서 나타나는 過食과 energy balance 異常, 運動不足, 情緒障害가 있고, 遺傳에 依한 先天的인 原因도 있다.

4. 韓醫學에서는 氣虛, 多濕, 多痰을 肥滿의 體質的 原因으로 보았고, 外的으로는 厚味過多를 큰 原因으로 보았다.

5. 治療面에서 韓醫學으로 補氣, 祛濕, 豁痰의 方法이 있다고 했고, 西醫學에서는 運動과 食餌를 매우 重要하게 보았다.

參 考 文 獻

1.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pp.73,96,99, 289,351,359.
2. 張景岳: 類經, 大星文化社, p.270,367,392, 1982.
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北, 大一書局

有限公司, pp.25,243,359

4. 金永勳: 晴崗醫鑑, 成輔社, p.35.
5.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pp.109,176, 1985.
6. 洪元植: 黃帝內經靈樞, 東洋學研究院, pp.188,256, 1985.
7. 江忍庵: 徐靈胎醫書全集, 卷三, p.116.
8.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p.402, 1985.
9. 李聰甫 外: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成輔社, p.240, 1985.
10.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pp.516, 889, 1982.
11.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84,194.
12. 李 梴: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外集卷1, 外集卷2.
13. 楊醫亞: 中醫學問答, 1985, 北京人民衛生出版社, 上册, p.54.
14. 薛 瑜: 萬病回春, 台北大中國圖書公司, 上卷 p.220, 下卷 p.1.
15. 陳夢雷 外: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諸疾上卷, pp.36,85,339,345,473,515, 1983.
16.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664, 1983.
17. 虞 搏: 醫學正傳, 北京人民衛生出版社, pp.74,75, 1981.
18. 匡調元: 中醫病理研究,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80.
19. 姚香雄: 症狀鑑別手冊, 九龍, 協和醫藥出版社, pp.518~524.
20. 黃義完外: 東醫精神醫學, 現代醫學書籍社, p.740, 1987.
21. 金定濟 外: 東醫肝系內科學, 集文堂,

- p.232 ~ 234, 1983.
22. 朴南錯: 漢方治療大全, 南山堂, p.69, 1986.
 23. 裴元植: 漢方臨床學, 南山堂, pp.519 ~ 522, 1981.
 24. 朴炳昆: 漢方臨床四十年, 大光文化社, pp.322 ~ 324, 1985.
 25. 裴恩成: 韓方大全, 生活文化社, pp.149 ~ 153, 1987.
 26. James. B. WYNGARDEN: Cecil text-book of Medicine, 17th edition, W.B. SAUNDER Co.; pp.1191 ~ 1197.
 27. EUGENE BRAUNWALD: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McGR AW-HILLBOOK Company, pp.1671 ~ 1676.
 28. FRANK. H. NETTER: CIBA collection of medical illustrations 卷4, CIBA Co., p.214 ~ 215.
 29. Arthur. J. VANDER: Human physiology, 3rd edition, New York McGR AW-HILL BOOK Co., pp.468 ~ 470.
 30. ARTHUR. C. GUYTON: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7th edition, W.B.SAUNDER Co., pp.824 ~ 865, 866, 1986.
 31. W.A.D. Anderson 外: Synopsis of Pathology, 10th edition, C.V. MOSBY Co.; p.26.
 32. KRUPP 外: Current Medical Dignosis & Treatment, 과학서적센터, pp.811 ~ 814, 1985.
 33. ROBBINS 外: Patholgy basis of disease 3rd edition, W.B.SAUNDER Co., pp.424 ~ 427
 34. 金榮湖: 月刊臨床藥學, 월간임상약학사, 4月號.
 35. Cobot 外: 診斷學, 민해관, pp.47,48, 1962.
 36. 홍창의 譯: 臨床小兒科學概論, 대한교과서(주), pp.24,64,65, 1975.
 37. 이문호 外: 內科學上卷, 금강출판사, pp.322 ~ 338, 1979.
 38. 홍창의: 小兒科診斷, p.392 ~ 394, 1973.
 39. 姜必求: 美國式治療法, 南山堂, p.366 ~ 369, 1984.
 40. 朴良元: 現代公衆保健學, 癸丑文化社, p.346, 1985.
 41. 趙允成 外: 病態生理學總論, 회성출판사, pp.65 ~ 71, 1988.
 42. 김영숙 外: 成人看護學, 壽文社, pp.905 ~ 907, 1983.
 43. 楊達先 編: 지금의 식생활로는 빨리 죽는다, 미국 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 報告書, pp.99 ~ 100.
 44. 李琦熙 外: 食餌療法, 大光印刷公社, p.129, 1975.
 45. 鄭錫熙: 肥滿症의 斷食療法에 관한 臨床的 研究, 慶熙大學校, 1986.
 46. 丁奎萬: 東醫小兒科學, 杏林出版社, p.572, 1985.